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, 군인·경찰 단체복으로 보급

환경부 보도자료 (2021. 03. 15.)

환경부는 3월 15일, 국방부와 경찰청, 섬유산업연합회와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기능성 의류를 시범 구매하는 자원순환 서약식을 개최했다.

- 환경부는 페트병 재활용 전 단계 개선 및 정책 지원, 섬유산업연합회는 회원사의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대 추진, 국방부는 1만 벌, 경찰청은 2천 벌의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의류 구매를 약속했다.

- 군인과 경찰이 입을 예정인 투명페트병 기능성 옷은 여름용 및 겨울용 운동복 1만 벌, 간이근무복 6백 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.

[국방부, 경찰청 구매의류 시제품]

- 전시회에서는 배출부터 제품화까지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전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페트병, 재생원료, 원사 등이 전시되었다.

-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 설명회에서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만든 가로수보호판, 재생기와 등 혁신제품 후보 재활용제품을 비롯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, 혁신제품 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.

-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하고, 지자체가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*할 계획이다.

* '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' 입법예고 중(2.16~3.29)

- 환경부 장관은 "이번 서약식은 중앙부처와 기업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이룬 모범적인 사례"라며, "국방부, 경찰청 외에도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여러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"라고 말했다.